

문화광장



김 준 기
미술평론가

사람을 개로 부르던 조선시대 말, 평생을 ‘동네 개’로 불리며 살다가 개벽의 깃발 아래 해방의 춤을 추었던 백정이 ‘동북개’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는 전 재산을 기부해 원평집강소를 마련했다. 지금도 이어지는 김제시 금산면 소재의 이 공간은 동학정신을 기리는 문화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다. 동학을 박제된 과거사로 묻어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며칠 전 정읍의 동학 공론장에서, 역사 속의 원평이 현재의 원평으로 살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사의식이 동시대에

학살과 항쟁을 넘어 상생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새삼 각성했다. 동학 유산을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여는 사유의 창으로 다시 꺼내 써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읍에 모였다. ‘2026 동학농민혁명 연구·창작자 워크숍’은 서울에서 제주, 80대 원로에서 20대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자와 예술가들이 세대와 지역을 넘나들며 저마다의 동학을 이야기하는 공론장이었다. 철저한 계급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깨고, 만민의 평등을 꿈꾼 개벽 혁명 사상은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 만물을 하늘처럼 공경하자는 생명 사상으로 넓어져 세대를 넘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대목에서 제주 4·3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한다. 4·3을 금기의 어둠, 즉 ‘기억의 자살’ 상태에서 끄집어내어 억울한 희생을 위무하는 진혼의 고향판을 열어젖힌 것은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지난한 노력의 성과였다. 그러나 이제는 비극적 수난사 이면에 감춰진 ‘당당한 죽음’의 의미를 정면으로 응시해야 할 때다. 우금티 고개에서 농민군이 기관총의 빔발치는 총탄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예견된 패배의 길을 걸었던 것은 무력한 학살의 기록이 아니다. 인간다운 삶과 자주적 세상을 위해 죽음을 무릅쓴 당당한 선택이었다. 제주 4·3 역시 무고한 학살과 해원의 차원을 넘어, 불의한 폭력에 맞선 저항의 에너지를 온전히 읽어내야 비로소 상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살-항쟁-상생’으로 이어지는 서사의 재구성과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4·3평화공원에 위패조차 모시지 못하는 항쟁 지도부 또한 분단과 냉전이 낳은 비극의 희생자이자, 통일조국을 염원하며 온몸을 던졌던

우리의 선조들이다. 동학혁명의 위대한 지도자 전봉준의 서사는 제주 청년으로 이어진다. 저항의 주체들에 대한 온전한 재조명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저항에서 상생으로’라는 정신문화의 도약은 불가능하다.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분단 체제가 남긴 족쇄를 걸어내는 일 등 오늘의 시대적 과제 의 맨 앞단에는 바로 동학혁명과 제주 4·3이 자리하고 있다. 뿌리를 바로 세우고 저항의 기억을 온전히 복원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상처를 딛고 만물이 상생하는 생명평화를 만들 수 있다. 그 답대한 길에 서울의 80대 소설가 안삼환과 김제의 50대 동학당 최고원과 제주의 40대 사진가 양동규와 광주의 20대 큐레이터 박진솔이 함께 서 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들과 함께 우리는 학살과 항쟁을 넘어 상생의 길을 걷고 있다.

사설

억울한 실종사건 없게 즉각 제도 보완 나서라

제주경찰이 실종신고사건을 허위 신고로 종결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지난 5월 실종신고와 지난 7월 또 다른 실종사건을 당사자와 통화한 것처럼 속여 허위 종결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가 논란이 된 상태에서 전남광주의 여고생 피습 사망사고와 맞물려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성숙 국무총리가 경찰청에 전국적으로 이 같은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3일 제주경찰청을 찾아 철저한 전수조사와 강도 높은 현장수색을 지시했다. 더욱이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선 후 잇따라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실종

신고 당시 경찰이 실종 가족의 입장에서 수색에 나섰다면 가족의 아픔은 장기간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아직까지 이 경찰관이 허위 종결한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실종사건 담당자가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건의 종결 여부보다 우선해야 할 사안은 실종사건을 성인과 청소년 등으로 나누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실종사건을 전화 통화만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것은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로서 무책임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2023년 이후 제주지역 내 성인 실종 미발견자에 대한 제수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젊어진 민선 9기 도정, 성과로 답해야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번째 정기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 특징은 민선 8기 도정 인사들을 대거 물갈이하는 한편 1970년대 생을 중용했다.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일하는 조직’ 구축에 초점을 둔 인사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정책을 총괄·주도할 핵심 보직에 1970년대 생 실·국장급 간부들이 대거 전진 배치됐다. 기획조정실장과 안전건강실장,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등 2급 이상 관직에는 모두 1970년대 생이 채워졌다는 점이다. 또 3급 국장급 중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특별자치행정국장도 1970년대 생에서 발탁됐다. 4급 과장급에서도 핵심 보직 중 하나인 총무과장을 비롯해 기업정책과장, 민선 9기 도정이 신설한 AI혁신

추진단장, 노동안전감독관, 기본 사회추진단장 등도 1970년대 생이 대거 임용됐다. 제주도는 1970년대 생 전진 배치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다만 문화체육관광과 해양수산국장 등은 현안 해결을 위해 유임됐다. 인사는 만사(人事萬事)라고 했다. 조직이나 일의 성패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출발한다. 젊은 세대들을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해 일하는 조직으로 변신을 꾀한 데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제 민선 9기 제주도정은 업무의 완성도를 높여 성과로 도민에게 답해야 한다.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열린마당

셀프주유소, 편리함보다 안전을 먼저



김 남 석
제주서부소방서 대정119센터

요즘 운전자가 직접 차량에 기름을 넣는 셀프주유소가 일상적인 주유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빠른 이용이 장점이지만, 편리함이 커질수록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 셀프주유소는 휘발유·경유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인 만큼 작은 부주의가 화재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셀프주유소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은 무엇보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유하는 것이다.

주유 전 시동 끄기와 주유 중 흡연 및 화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주유가 끝난 뒤에는 주유건을 정확히 제자리에 걸어 놓아야 한다. 또한 관계인의 역할도 중요하다. 주유설비와 유증기 회수설비 등 안전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설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가 안전 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안내문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셀프주유소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생활시설이다. 그러나 편리함이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증기부터 작은 부주의까지 꼼꼼하게 관리할 때 셀프주유소는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위 지사 “도민 안전, 타협할 수 없는 가치”

사건 대응체계 전면 재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도내 실종 사건 처리 논란과 잇따른 연안 사고에 따라 실종·위기 사건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도민 안전망을 강화.
위성곤 지사는 24일 도청 탐라홀에서 중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안전관리, 내년도 예산 편성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으며 최근 처리된 실종·위기 사건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부실 처리를 막을 수 있는 검증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시.
이날 회의에서 위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도정의 존재 이유이자, 민선 9기 제주도정이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며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대응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야생동물 포획단 활동 강화
○…서귀포시가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생 멧돼지 출몰로 인한 안전사고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의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
시는 8월 현재 대리포획단을 통해 올해 멧돼지 94마리, 유해조수 2529마리 등 유해야생동물 2623마리를 포획.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은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33명(2개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생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출몰이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신속하게 포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추석을 전후해 야생 멧돼지 출몰지역에 대한 예찰과 포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문만주(1971. 09. 22. 생)
• 최후주소 : 제주도 애월읍 학원동길 17-1 (애월읍)

상기자는 2025년 10월 27일에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6년 8월 5일 제주지방법원 2026노단519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04, 6층 법무법인 유연

2026년 8월 25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문 상 빈

모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만에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모지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물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 장 의 사

616-08-85402

Copyright © 2026 Hanra Ilbo. All rights reserved. | 15